

'용굴산' 명품 관광지 조성

순창군, 총사업비 5억원 투입... 12월까지 맨발걷기 좋은길 조성사업 완공 예정

순창군이 하늘길로 유명한 용굴산 자연휴양림에 누구나 편하게 걸을 수 있도록 맨발걷기 좋은 길'을 조성한다.

이번 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의 문화관광자원개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총사업비 5억 원이 투입되며, 이달 착공을 시작으로 오는 12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될 예정이다.

용굴산의 하늘길은 연간 10만명이 찾는 순창군 대표 관광지.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함께 산책과 하이킹을 즐길 수 있어 매년 전국 각지의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명소다.

하지만, 절벽의 높은 경사와 많은 계단 수로 인해 노약자나 체력이 약한 방문객들에게는 다소 어려운 점이 어려운 점이 있어, 군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방문객이 편안하게 용굴산을 즐길 수 있도록 맨발걷기 좋은 길 조성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약 1km에 달하는 맨발걷기 좋은 길'을 통해 숲속을 거닐며 자연의 생동감과 평온함을 느껴 일상에서 지친 사람들에게 큰 힐링을 선사할 것이며, 특히 맨발로 걷다 보면 발 마사지 효과도 누릴 수 있어 건강 증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순창군은 맨발걷기 좋은 길 외에도 쉼터(마당), 세족장 2개소, 먼지떨이기, 안내판 설치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조성해 방문객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특히, 어린이 놀이공간도 조성해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큰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자유롭게 뛰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함으로써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휴양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용굴산 맨발걷기 좋은 길 조성사업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용굴산의 아름다움을 편안하게 즐길 수 있기를 바란다"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순창군 용굴산 자연휴양림 (사진=순창군청 제공)

임실군, 상반기 배수지 청소 실시

30일까지 27곳 대상

임실군이 오는 30일까지 수도시설 배수지 27개소를 순차적으로 청소하고 있다.

배수지는 수용기에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정수장에서 생산

한 수돗물을 저장하는 저수조이며, 정기적으로 청소가 필요한 수도시설 중 하나이다. 군은 수돗물의 위생관리를 위해 매년 반기마다 저수조정수업체에 위탁하여 배수지 바닥 및 벽체 등 청소를 통해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청소뿐만 아니라 각종 밸브 및 보안장치 정상 작동 확인 등 노후 시설물 사전 안전 점검도 실시함으로써 주민들이 수돗물을 믿고 마실 수 있는 안전한 급수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고 있다. 단수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수돗물 사용이 적은 시간대에 1개소씩 순차적으로 청소를 실시하고 있으며, 불가피하게 단수를 할 경우에는 사전 홍보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 /임실=진홍경 기자

남원시, 공직자 대상 고충민원 역량강화 교육 실시

남원시는 지난 26일, 시청 강당에서 200여 명의 공직자를 대상으로 고충민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특별민원 전문관을 역임한 이용범 사무관의 고충민원 경험과 사례를 중심으로 고충민원의 특징과 유형, 이에 대처하는 공무원의 자세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교육에서는 고충민원의 특성에 맞추어 일반민원과는 접근을 달리해야 하며, 고충민원은 특히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강조하였고, 또한 맑은 업무의



연구를 통한 전문성이 뒷받침되어야 고충민원에 대한 대응이 가능하므로 업무에 대한 연구 노력을 당부하였으며, 공직자는 냉철한 머리와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민원에 대응하고 때론 기가, 업무 회피 등을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남원시에서는 청렴 우수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해 △실용적인 반복패 청렴교육을 통한 청렴의식 개선, △구성원 의견청취 및 소통 확대 통한 청렴의 생활화 등의 노력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관계자는 최경식 시장이 27일 민선8기 공약 및 지시사항 추진상황 보고회를 직접 주재하며 공약과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 상황 등을 직접 점검했다.

남원시장, 공약 추진상황 점검

민생경제 돌봄협의체 운영 등 공약 이행률 52% 순항 중

남원시 관계자는 최경식 시장이 27일 민선8기 공약 및 지시사항 추진상황 보고회를 직접 주재하며 공약과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 상황 등을 직접 점검했다.

이날 보고회는 부시장을 비롯 국소 성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6대 분야 41개 공약사업의 추진상황과 하반기 업무보고 시장 지시사항 59건을 보고하고, 이행 상황을 전체적으로 점검하며 피드백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연중 스포츠 대회 개최로 스포츠 명품 도시 도약 △생활스포츠 활성화 △농촌인력지원 확대 운영 농업경영 안정 강화 △축산악취개선 사업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민생경제 돌봄협의체 운영 등의 공약을 조기 이행했으며, 공약 이행률은 52%로 순항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하반기 업무보고 지시사항 59건의 추진 상황 점검 결과 △2025년 예산 수립 기본지침 마련 △자연재난 풍수해 재난대비 현장훈련 등 4건은 현재 완료되었으며 △지역특화 콘텐츠 마케팅 전략 마련 △인재육성 우수 교육시스템 도입 방안 마련 △복지사 각지대 해소방안 모색 △빈집 활용 귀향·귀촌인 주거환경 마련 등 48건도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특히 아직 검토 단계에 있는 7건에 대해서도 진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으로, 공약 및 지시사항은 지역 현안인 만큼 이행 상황과 추진계획을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이 자리에서 최 시장은 "민선 8기 전반기가 새롭게 변화하는 남원을 위한 초석을 다지는 시기였다면, 후반기는 완성하는 단계로 시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예산 수립 기본지침 마련 △자연재난 풍수해 재난대비 현장훈련 등 4건은 현재 완료되었으며 △지역특화 콘텐츠 마케팅 전략 마련 △인재육성 우수 교육시스템 도입 방안 마련 △복지사 각지대 해소방안 모색 △빈집 활용 귀향·귀촌인 주거환경 마련 등 48건도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특히 아직 검토 단계에 있는 7건에 대해서도 진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으로, 공약 및 지시사항은 지역 현안인 만큼 이행 상황과 추진계획을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이 자리에서 최 시장은 "민선 8기 전반기가 새롭게 변화하는 남원을 위한 초석을 다지는 시기였다면, 후반기는 완성하는 단계로 시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 옥정호 붕어섬 생태공원 '여름꽃 보러오세요'

인기 절정 관광지로 각광받고 있는 사계절 꽃과 나무로 어우러진 옥정호 붕어섬 생태공원에 여름꽃들이 관광객들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다.

군은 수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옥정호 출렁다리를 건너면 나오는 붕어섬 생태공원에 여름철 관광객을 위한 여름꽃 경관 조성을 마무리했다고 27일 밝혔다.

평년보다 일찍까지 6월에 찾아온 무더위를 피해 임실을 찾는 관광객들을 맞을 준비를 한 것이다.

앞선 봄철에는 옥정호 순환도로변의 벚꽃과 함께 붕어섬 생태공원에서는 튤립과 수선화, 꽃잔디, 철쭉들이 장관을 이루며, 5월에는 작약꽃과 양귀비

의 개화 절정으로 수많은 관광객들이 발길이 이어졌다.

실제 임실군 붕어섬 생태공원을 찾는 관광객들은 5월 말 기준, 2023년 14만명에서 2024년에는 20만명을 넘어섰다.

붕어섬의 인기가 날로 더해지고 있는 만큼 군은 관광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기 위한 편의시설 보완과 경관 조성에 더욱 공을 들이고 있다.

이번 여름꽃 경관 조성은 임파센스와 페튜니아와 같은 대표적인 여름꽃과 더불어 체리세이지, 부겐빌레아, 숙근버베나 등 여름을 만끽할 수 있는 특색있는 꽃들을 식재했다. /임실=진홍경 기자

지역 소식통

순창군, 한지봉 3세대 효도수당 매월 8만원 지급

순창군이 경로 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문화 확산을 위해 3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을 대상으로 효도수당을 연중 신청받겠다고 27일 밝혔다.

효도수당은 '순창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되며, 지원대상은 만 70세 이상의 효도대상자를 포함한 3세대가 3년 이상 순창군에 계속해 동일 거주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이다.

특히, 군은 효도수당 지급 금액을 지난해 월 5만원에서 올해부터 8만원으로 인상해 따뜻한 복지 실현이라는 군정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부양가족은 신청서 신분증, 수당지급통장, 효도수당 지급신청서 등을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단, 효도수당은 효도대상자, 직계비속의 사망, 전출 등 효도 가정 요건 변동, 효도대상자 수령 거부,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확한 방법으로 신청할 경우 중지된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 시민 소통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남원시는 27일, 시민과의 소통·공감을 위한 2024년 상반기 시민소통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하였다.

위원회는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30명의 시민으로 구성되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에 전달하고 주요 시정에 대 홍보 등 양방향 소통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이날 정기회의에서는 제94회 춘향제가 대한 피드백을 진행, 잘못된 점은 강화하고 미흡한 점은 보완하여 제95회 춘향제를 미리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생활인구 정책 알람서비, 누리시민제도 등 생활인구 활성화 방안 관련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김민주 시민소통실장은 "위원회가 항상 시민과 함께하고 공감할 수 있는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엔 치즈

벨기에 출신 지정한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엔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엔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